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아침묵상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매일 아침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3. 중보기도

강민선 집사님 어머니의 회복 위해서도 계속 기도바랍니다.

9:1: 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지난 주 (7/7)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740.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최빅토리아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 7:24-30	다함께
특송 Special Song		정요찬
말씀선포 Sermon	요한보다 큰 자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7월 21일	7월 28일
강민선	윤하나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가을예대시)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실족하지 않는 길

본문 : 눅7:18-23

신자는 죄를 물리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모인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예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교회나오는 것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이것을 대개는 실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실족의 의미는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일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음성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들이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고 외쳤는데 이것만으로도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순간 보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되심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모습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우리가 그러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든지, 아니면 육의 시선 속에 머물면서 실족하든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령의 다스림으로 실족하지 않은 자들의 삶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의 스테반 집사입니다. 그는 순교의 길을 걸으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자기를 찾아올때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도 옥에 갇혀 죽을 날을 받아 놓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 캄캄한 감옥 안에서 코를 골며 깊이 잠들었습니다. 의심과 실족이 아닌 평안과 기쁨이 그의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주어진 단잠이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곧 말씀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평안할 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빛되신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